

보혈은 말처럼
힘있고 끈정적인
고사한 하되시게요

丙午年



CMC 90년, 빛의 증인들

2026년은 성모병원 개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역사 90주년입니다. 1936년 24병상으로 역사의 첫 발을 디딘 CMC는 어느덧 의대·간호대, 전국 8개 병원 6천여 병상 규모의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의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명동에 개원했던 성모병원도 1986년 자리를 옮겨 올해 여의도성모병원의 이름으로 9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가톨릭메디컬타임스는 90주년을 맞이하여 CMC가 걸어온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조명하고 그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자부심을 상기시킬 수 있는 소중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CMC 90년, 빛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기관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연재기사는 오는 3월호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게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걷는 **사명**, 함께 이루는 **평화**

희망의 장이 펼쳐진 2026년 새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깊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도전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따라 힘과 용기를 얻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바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 5)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과 희생, 배려와 겸손의 태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초대입니다. 예수성심의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향한 배려를 본받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이 교육과 의료의 길을 선택해 걸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Vivere in Corde Jesu)”라고 확신합니다.

2026년은 세계청년대회(WYD) 준비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기관과 교회 전체가 젊은이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이 대회를 준비하며,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여정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정신적·영적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권리를 증언할 용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의료진과 교육 및 사업 현장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은 우리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시련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환자와 학생,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는 여러분의 노력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면서도 동시에 험난한 길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문을 통해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 그리고 사회에서 평화의 건설자로서 우리 각자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책임을 담대히 실천하는 일은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남겨 줄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 대회는 바로 이 ‘하느님과 우리 우정, 그리고 평화 건설의 소명’을 젊은이들의 열정과 희망을 통해 세상에 힘차게 선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거룩한 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용기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는 데에서 나오며, 그 믿음은 예수성심의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마련하신 선한 계획은 이미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설령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은총 안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쭐대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오직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고귀한 사명을 당당하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크신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바로로 주교

‘변화의 주도자’로 거듭나는 2026년

사랑하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열정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사회적으로도, 의료계 내에서도 급격한 변화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1년 반 이상 이어졌던 의정갈등도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CMC의 품격을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주신 교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은 그동안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걸어온 가톨릭중앙의료원이 90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해입니다.

우리는 1936년 중구 저동의 성모병원에서 시작해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최초 신장 이식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다장기 이식 등 새로운 시도에 머뭇거리지 않았고 위기가 왔을 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며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의학·간호학 교육기관이자 환자가 아플 때 의지하고 싶은 의료기관이라는 사회적 위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늘 **변화의 주도자**였기 때문이며 이는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의료계는 지금 디지털 전환, 초고령 사회, 글로벌 경쟁 심화, 의정갈등의 후속 조치 등 빠르고 복합적인 변화의 물결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생존과 성장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다음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료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입니다. 이 역량의 상실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8개 부속병원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이 최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인사·지원 방안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우수한 교원 영입 확대, 데이터 기반의 임상·연구역량 평가체계 구축, 전공의 교육 수준의 제고와 함께 전담간호인력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CMC의 경쟁력과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둘째, **혁신을 통해 미래를 지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AI 의료거버넌스를 8개 병원에 확립해 의료데이터 활용, 진단·치료 효율화, 스마트병원 고도화를 가속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 간 진료역량 편차를 줄여주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등을 통해 미래 ‘게임 체인저’ 급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임상

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연결해 CMC가 한국 의료 혁신의 중심에 다시 서도록 만들 것입니다.

셋째, **영성에 기반한 마음의 성장**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 기반에는 가톨릭 교회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변화의 길목에 서게 되더라도 윤리적 의료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이웃의 고통을 돌보고 헌신할 때 이루어진다”는 교황 레오 14세의 말씀처럼, 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해 가겠습니다.

친애하는 CMC 가족 여러분,

미래 변화된 의료패러다임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으며 이는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보다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문을 열고자 하면 흔들림과 저항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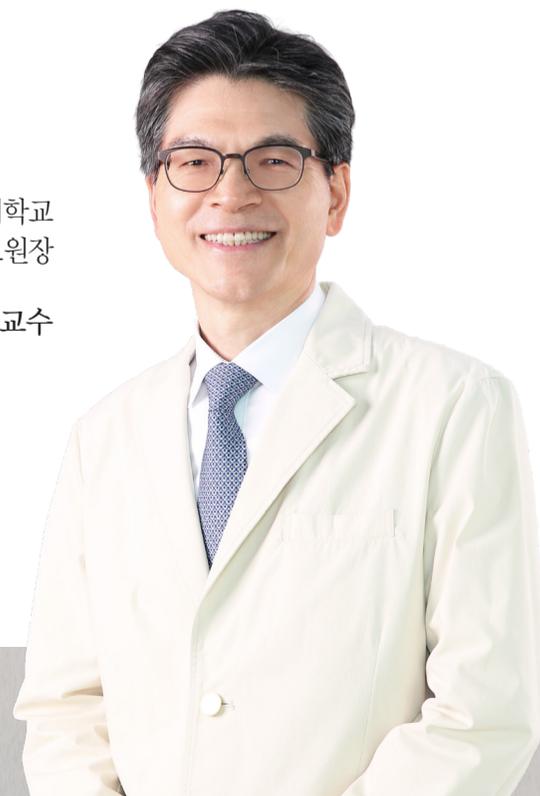
우리 선배들이 불가능해 보이던 여러 업적들을 성공시키며 오늘의 CMC를 만들 수 있었던 중심에는 어려운 여건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부터 **미움을 담대하게 받아내고 도전할 마음**을 갖겠습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 새로운 치료법, 혁신적인 운영체제, 더 높은 진료 기준, 새로운 목표와 실행 의지를 가지고 CMC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춘 CMC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올해를 **혁신을 품은 도전과 가치를 키우는 성장**이 있는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올해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임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창기 교수



혁신을 향한 도전, 미래를 여는 성장

존경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기상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25년, 우리는 의료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과 연구라는 본분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의정 사태가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의과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대학은 회복을 넘어 **'혁신을 향한 도전, 미래를 여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각오를 다집니다.

첫째, 2026년을 신뢰 회복과 대학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실추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부 및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가톨릭 영성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성모병원 개원 9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생명존중과 인간 사랑의 가치를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에 내재화하겠습니다.

셋째, AI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AI시대에 걸맞는 문제 해결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의료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연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과 학·석사 연계 과정 등 '미래 완성형 인재 양성 체제'를 통해 연구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직 운영 혁신 및 국제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026년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아픔을 딛고 9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명문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하느님의 은총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래를 여는 간호대학, 함께 이루는 가치”

간호대학장
이선미 교수

2026년을 맞아 우리 간호대학과 의료원 및 성의교정의 모든 구성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대학은 **간호교육인증 획득, 국제교류 확대, 기술지주회사 '케어마루나' 설립**이라는 성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우리 간호대학은 **인재 양성, 연구 혁신,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 간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첫째, 학부교육에서는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 중심 간호의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를 키워내겠습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임상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강화**를 위해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하고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실습을 강화하여, 기술 발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Human Expertise'**를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간호의 구심점이 될 **'간호가치혁신연구원' 설립**을 추진하여 우리가 만든 표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8개 부속병원의 임상 지식을 집대성해 미래 간호과학자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을 제안하는 산실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데이터 기반 AI 연구와 **한국형 Magnet Model 구축**으로 가치 기반 간호의 표준을 제시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서 구성원의 성장을 이끌어 '기대와 용기, 도전과 성장'을 실질적 성과로 잇겠습니다.

셋째, 호스피스 연구소 30주년을 맞아 **WHO 호스피스완화의료 협력센터 연례 총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증명하겠습니다. 세계적 리더들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KOICA 사업 등 국제협력력을 확대하여 가톨릭 정신을 실현하는 **간호대학의 소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여러분, 2026년에도 우리 간호대학의 핵심가치가 교육·연구·임상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소명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도전으로 혁신을 이루고, 성장으로 탁월함을 완성하다

존경하는 연구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의생명산업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변화하는 연구환경 속에서도 임상·기초 연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며,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우리 기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연구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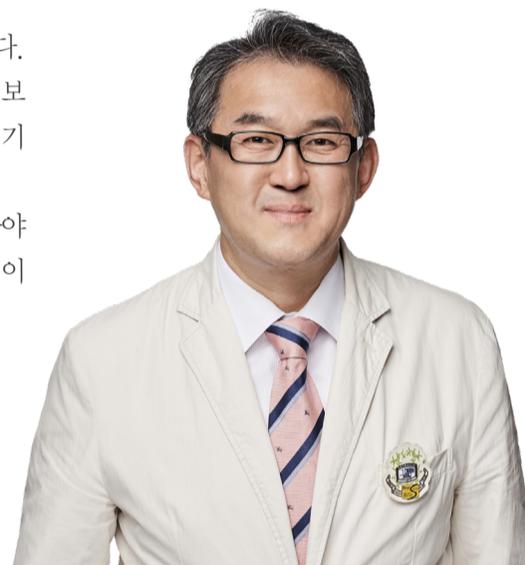
2026년 의생명산업연구원은 **도전으로 혁신을 이루고, 성장으로 탁월함을 완성한다**는 비전 아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 등의 국가 대형연구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획, 중·대형 기술 이전 활성화, 임상 및 이형성 연구의 질적 고도화는 올해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의학의 기반을 강화하고, 융합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원-산업계-국가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구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의생명산업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2026년에도 연구 공간의 지속적 개선, 데이터·장비 인프라의 고도화,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자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연구자의 도전이 기관의 혁신으로, 기관의 성장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더욱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연구자 한 분, 한 분의 성과가 모여 기관의 혁신을 이루듯 함께 성장하는 연구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새해에도 연구자 여러분의 전문성, 창의성, 도전정신이 대한민국 바이오 연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생명산업연구원장
김완욱 교수



디지털 혁신의 도전, 미래가치를 키우는 성장



정보융합진흥원장
김대진 교수

사랑하는 CMC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은 CMC 디지털헬스 전환의 기틀을 단단히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진흥원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환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CMC 애프터케어 플랫폼을 오픈하여 치료가 병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새로운 케어 모델을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각 부서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6년은 이러한 기반을 확장해 '전주기 디지털 케어 생태계'를 완성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애프터케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 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예측·관리 체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IT 인프라 구축과 AI를 활용한 진료지원 환경을 마련하여, 의료진에게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환자에게는 더 향상된 치료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우리는 가톨릭 정신을 디지털 전환의 중심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I가 의료현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수록, 우리는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AI 윤리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톨릭적 AI 의료'의 방향이며, CMC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차별성입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CMC의 정신을 지켜내는 주체입니다. 지난해 보여주신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성모병원장
이지열 교수

소통과 존중, 사랑을 통해 미래를 혁신하는 병원

코로나와 의정사태가 끝나고 9월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도, 교직원분들에게도 모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서울성모병원을 찾는 환우분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와 최상의 치료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울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돌보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세대 간 소통과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신입 교직원에게는 따뜻하게 알려주고 연륜 있는 분들에게는 존경과 배움을 실천하는 가톨릭 병원, '사랑 중심의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AI 시대이지만, 대면하고 대화하며 인간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2026년에는 직원 가족 초청의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근무하는 병원이 어떤 곳인지 부모님이 알 수 있고, 부모님이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한 자녀들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직원들을 위한 등반대회, 체육행사, 동아리 활동 등도 다시 활성화하여 모두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병원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병원 개원에 이어서 안과병원 및 비뇨기암병원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는 한편, 차세대 양성자센터 구축과 수술실 확장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성과 사명을 순수하게 드러낼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와 나프로임신센터에도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사랑·헌신·치유의 사명을 이어온 우리 서울성모병원은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과 생각을 이루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리(필2:1-4)'는 성경 말씀처럼, 사랑을 통해 혁신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2026년 한 해를 희망으로만 가득 채워나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원 90주년, 영성과 혁신으로 여는 미래

사랑하는 여의도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교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개원 9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은 경영방침 '영성과 혁신으로 여는 미래'로 한 해를 걸어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장동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림프종센터, 안과병원, 뇌건강센터 등 중점육성센터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 센터 신규 발굴과 최신 로봇수술기를 추가 도입으로 생산성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의학 연구로 병원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효율과 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새로운 제도에 적극 대응하여 수가 신설·가산을 병원 발전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전담간호사 법제화에 따라 인적자원 관리와 경력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 지표를 상시 점검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영성 구현을 확산해 모병원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겠습니다. 생명존중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증언하는 병원으로서 나프로임신,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살예방 사업 확대를 통해 가장 약한 이들을 먼저 찾는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영성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사회공헌과 영성기반 ESG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가장 신뢰하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모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가치와 영성을 품은 혁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겨자씨키움센터 혁신과제 활동 참여, 국책·임상연구,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연구 기반의 혁신을 이어가고 디지털과 AI를 활용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환자와 동료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맞춤 교육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직원 한 분 한 분의 성장이 곧 병원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100년의 기도, 90년의 축적, 다음 100년의 여정

여의도성모병원은 1936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문을 연 '성모병원'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년의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병원은 이제 90년의 시간을 신앙과 전문성이 축적된 역사로 품고 서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의료기관의 모병원으로서 우리는, 이 축적된 90년을 발판 삼아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CMC 영성을 더욱 깊이 새기며 이 순간부터 또 다른 100년의 미래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려가고자 합니다.



여의도성모병원장
강원경 교수



의정부성모병원장
이태규 교수

함께 여는 새 길, 거침없는 도약 - Beyond Normal 2026

도전과 성장의 새해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용기 있게 달리는 말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따스한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변화와 굴곡의 지난 한 해, 우리는 경기 북부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환자 곁을 지켜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진심이 2027년 70주년을 맞는 우리 병원의 100년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평범함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향한 비범한 발걸음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단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는 원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기대와 '용기를 품고,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 병원이 올해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모으며 힘을 합해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약속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갖추어 환자들에게 신뢰를 드립니다.

단순한 경영 회복을 넘어 환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확실한 성장을 목표로 삼고,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자산인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둘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우리의 터전을 가꾸겠습니다.

최신 암 치료 장비와 심혈관 치료 시설을 두배로 늘리고, 로봇수술 등의 첨단치료장비의 추가 도입과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증설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 시설을 확장하고 환경을 더 편안하게 고쳐 환자들에게는 쾌적함을, 우리에게는 일하고 싶은 일터를 선물하겠습니다.

셋째, 똑똑한 병원 시스템을 도입해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가치인 가톨릭 영성을 기반으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장비와 모니터를 증설하고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스마트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진료기록시스템을 적용하여 오직 환자 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혁신을 품은 도전, 가치를 키우는 성장”의 2026년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부천성모병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료공백, 정부정책 변화, 인력난 등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성과를 이루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가톨릭학원 상시 환자경험조사 대상, 로봇수술 1,000례 달성, 심혈관중재술 3만례 돌파 등 고난도 진료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인력양성 로드맵 구축, 간호시스템 정착, NGS 검사, AI 환자안전 솔루션, 스마트 모니터링 등 의료혁신 기반을 마련하여 복잡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도전을 통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6년은 새로운 성장곡선을 그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환자가 신뢰하고, 부천이 의지하는 지역책임병원”을 목표로 다음 네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가톨릭정신에 기반한 영성 강화 윤리적 진료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환자와 가족까지 돌보는 '사랑의 의료'로 가톨릭 영성을 체현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고령 친화 진료, 암 및 심·뇌혈관 질환 등 고난도 진료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CMC네트워크 기반의 고품질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 필수의료로 책임지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 가속화하여 미래의료를 열겠습니다.** AI기반 환자안전시스템의 고도화, 스마트 임상모니터링 도입, 로봇수술 플랫폼 확장, NGS기반 정밀의학 심화 등 '미래를 만드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병원경영을 이루겠습니다.** 병원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핵심진료를 육성하며,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따뜻하며, 더 나은 의료를 지속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성모병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위기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행력, 무엇보다도 환자를 향한 마음. 2026년에도 그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부천성모병원장
박익성 교수



진료 경쟁력과 혁신으로 지속 성장과 재정 건전성 강화의 해



은평성모병원장
배시현 교수

사랑하는 은평성모병원 가족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병원은 '수도권 서북부 중증·응급질환 최종 치료 병원'을 목표로 조혈모세포이식 500례와 로봇수술 4,000례 달성, 장기이식·암 수술 증가 등 중증 진료 전반에서 의미 있는 도약을 이뤘습니다. 또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2026년은 우리병원이 개원 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행운의 숫자 '7'과 함께 소중한 조직문화, 탄탄한 재무자립 경영을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평성모병원은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영성·윤리·핵심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기도와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거자씨키움센터 공모전 혁신 아이디어 실현으로 구성원의 창의적 제안이 조직원과 기관의 성과 향상으로 연결되는 일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병원의 성장 구조를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수술·시술 확대와 검사 처방의 최적화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수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구·삭감 관리와 공동 구매 등 비용 효율화 전략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진료 역량 홍보를 통해 신환 유치와 외래 활성화를 이끌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고난도 심장수술 확대, 암치료기 2호기와 CAR-T 세포치료 도입, 로봇수술기 3호기 확충과 수술 건수 확대를 통해 중증 진료 역량을 크게 높이고,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AI 기반의 효율적 진료·근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AI 전문 위원회 신설, RFID 스마트 물류관리 등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환자와 직원 모두가 더 편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기운이 살아나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신뢰가 더해질 때 은평성모병원은 더욱 단단한 성장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넘어, 의료 혁신의 중심으로”



인천성모병원장
홍승모 몬시놀

지난 2025년은 인천성모병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7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자 중심 진료'라는 핵심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진료 역량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강화되었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도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또한 암센터를 개소해 중증 암 치료 역량을 높이고 환자 맞춤형 통합진료 체계를 구축했으며, 조혈모세포이식병동을 마련해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들이 지역에서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로봇수술센터는 인천 최초로 4,000례를 달성해 첨단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운영과 응급의료 지원, 의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 지표를 넘어 환자들이 신뢰하고 찾는 병원 환경 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입원환자 비급여율과 표준화 사망비가 낮게 나타나, 우리 병원의 진료 수준과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인천성모병원은 70년의 전통을 기반으로 더 큰 도전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마일스톤(The Challenge of Milestone)을 설정하고, 병원 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 확보와 리더십 강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원의 4대 경영방침인 기본경영·공감경영·인재경영·행복경영을 심화해 환자 중심 문화를 확립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균형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70년의 역사는 교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만든 귀중한 결실입니다. 새해에도 설립 이념과 핵심가치를 되새기며, 생명 존중과 환자 중심의 최상의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함께 그리는 미래, 함께 하는 성장”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용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함께 미래를 그리고 성장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6년, 성빈센트병원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성빈센트병원의 미래경영전략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구성원 모두가 **병원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공감하고,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해**로 보내고자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성빈센트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체질 개선에 나서 빠르게 재편되는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환경, 심화되는 지역사회 내 의료 경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 **중증·필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며, 환자 중심의 진료 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외래·병동·수술실·검사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전반적인 의료 질적 수준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성빈센트병원의 기관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경영전략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며, 인재양성 및 혁신 전략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빈센트 성인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깊게 스며든 **‘장벽없는 병원(Barrier-Free Hospital)’을 향한 보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공헌 활동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환자 및 교직원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의 공감은 병원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큰 힘이자,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빈센트병원 구성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미래의 비전과 발전에 대해 함께 공감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더욱 힘차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같은 배에 올라 같은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수녀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따뜻한 병원’을 향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의료계의 큰 시련과 변화 속에서도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중증 환자 진료 유지율을 성공적으로 지켜냈고, 병동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환자 안전과 편의를 한층 높였으며, 지역 최초로 폐암 및 유방암 AI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을 도입해 미래 의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각종 적정성 평가에서도 변함없이 1등급을 획득하는 자랑스러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 치료’라는 우리 병원의 소명을 몸소 증명해 낸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따뜻한 병원’**이라는 2026년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의료 행위에서 **공감과 치유의 환자 중심 의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분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까지 진정으로 치유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감이 선행되는 진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비스를 넘어, 환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나누는 진정한 전인 치료를 실천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희망이 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기 위해 첨단 의료 시스템과 연구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및 응급 환자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치유 공동체**를 구현해야 합니다. 병원이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역량 강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 환경 및 복지제도를 개선해 여러분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 받고 존중 받는 행복한 직장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 병원의 가치를 입증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꽃피울 새 병원 건립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2026년에도 주님의 축복 속에 힘차게 전진합시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대전성모병원장
강전웅 신부



서울성모병원

'메리 기부스(Merry Give-Us)' 성탄 나눔 캠페인 개최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성모 자선회 기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메리 기부스(Merry Give-Us)'를 진행했다. 기부 자판기 'Merry Box'에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직원과 내원객이 함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사랑 나눔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여의도성모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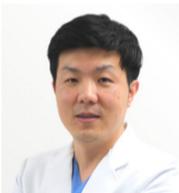
2025 북한이탈주민·노숙인에 '성탄 나눔' 훈풍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가 성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성모자선회는 서울남부하나센터, 영등포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취약 주민들, 남대문,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김장김치, 빅머머 등 많은 양의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성모자선회 관계자는 "성탄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이 기대를 품고 용기를 내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

'JAMA Network Open' 저널에 연구 게재



의정부성모병원 부성현 교수와 안효석 교수가 심부전 치료의 핵심 약물인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완벽하게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중 하나인 'JAMA Network Open(IF=9.7)'에 최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두 약제 간의 미

세한 효과 차이에 대한 오랜 임상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부천성모병원

K-DAVO 메디컬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K-DAVO 메디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환자 진료 협력과 환자 의뢰 체계 구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의료관광 시장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천성모병원은 협약을 계기로 현지 의료 네트워크 거점을 확보해, 중앙아시아 환자 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은평성모병원

은평성모자선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은평성모병원 은평성모자선회는 최근 서울시 '잇다푸드뱅크 감사의 밤'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족한 자선회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주민,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게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하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나눔을 이어왔다. 현재는 약 800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2025 협력병원 간담회 개최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2025 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료협력팀 주관으로, 협력 병·의원과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 협력 병·의원장 및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성빈센트병원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학술지에 연구 게재



성빈센트병원 김중현 교수(왼쪽)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기모란 교수(오른쪽)팀이 B형간염의 주요 전파경로인 모자감염이 임신 중 산모의 항바이러스 투여와 모유수유, 예정 제왕절개술로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SCIE에 등재된 대한간학회 국제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IF=16.9)'에 게재되며, 학술적 의의를 높이 평가 받았다.

대전성모병원

개원 56주년 기념식 개최



대전성모병원이 최근 '개원 56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장기근속 교직원, 모범 교직원 및 부서, 협력업체 공로 표창,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직원 표창은 35·30·25·20·10년 장기근속 교직원 95명을 비롯 모범 교직원 4명, 협력업체 직원 등 총 100명에 대한 공로 표창과 포상이 이뤄졌다. 또한 탁월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자세로 귀감이 된 모범부서는 ▲정형외과 ▲간호부 ▲원목팀이 선정됐다.

2026 CMC 핵심가치실천공모전

2025.12.17 - 2026.01.23

CMC에서 함께한 생명을 향한 성장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촬영해주세요!

간담체외과 로봇수술팀(부천성모병원 로봇수술 1,000례 돌파 기념 사진)

환자를 위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White Coat Ceremony(화이트코트 세레머니)를 개최했다. 이동건 의과대학장, 김우진 교목실장을 비롯한 병원장·의무원장, 주임교수, 수련교육부장 및 의과대학 교수진과 학부모, 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주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청진기를 걸어주며 임상실습을 임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 선서에서는 인간 생명을 수태되는 순간부터 존중하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의 도구가 되는 어떤 시술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의사의 양심과 품위를 지키고 어떤 차별과 편견 없이 환자들을 사랑하며, 전인적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술의 습득을 일생동안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White Coat Ceremony

2025년 12월 1일 (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선진 정기 기부 업무협약 체결 연간 약 3,000만 원 규모, 소아청소년 및 자립청년 치료비 지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1월 27일 (주)선진과 정기 기부 및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선진과 낙농가 멤버십 '클럽 로보스(Club ROBOS)'에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의료원 자선기금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연간 약 3,000만 원 규모의 치료비 지원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24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자립청년 치료비 지원에 사용되며,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기부 체계 구축,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축산업계 기반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창기 교수 외 원내 주요 보직자와 (주)선진 홍진표 국내사업대표, 이재광 클럽로보스 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홍진표 국내사업대표는 "클럽 로보스를 통해 낙농가 고객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겠다."며 지속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민창기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고객 농가와 함께 만든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뜻깊은 나눔"이라고 강조했다.

(주)선진과 클럽 로보스는 지난해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을 돕는 등 지역사회 기반의 나눔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주)플레이잇 기부 업무협약 체결 식사 모임이 기부로, 새로운 나눔 문화 확산



12월 3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주)플레이잇과 정기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환우들에게 연령·국적·질환에 관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플레이잇의 '테이블메이트'는 식사 모임 참가비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6회 진행된 모임에는 34명이 참석해 약 700만 원이 의료원에 전달됐으며, 모임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가 이뤄지고 자선기금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성종 후원회사사무국장은 "가치 있는 경험을 기부로 연결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작은 식탁이 큰 희망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실천"이라고 전했다. 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플레이잇 김향주 대표는 금융·IT·블록체인 전문가로, 테크 기반 기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2025년 1월, 플레이잇을 설립하고 테이블메이트를 론칭하며 기부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왔다.

주식회사 자여, 가톨릭중앙의료원에 1억 원 기부 생명존중 가치 실현 위해 나눔의 뜻 모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2월 10일, 주식회사 자여 정재훈 대표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정재훈 대표를 비롯해 민창기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전영준 기획조정실장, 이성종 후원회사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이번 기부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사용처를 위임하는 'CMC 생명존중기금'으로 기관에서 펼치는 진료, 연구 등 의료 발전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정재훈 대표는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재훈 대표의 기부는 부친의 뜻을 이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더욱 뜻깊다. 그의 부친인 정길상 진영산업 회장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건립기금 1억 원,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해 오며 CMC와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은 우리 기관이 생명존중의 의료사업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대표가 이끄는 주식회사 자여는 자동차부품·철강·무역 및 운수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을 위한 꾸준한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손기은	1,000,000원	윤성재	200,000,000원
이승현	1,000,000원	정재훈	1,000,000원
주식회사 자여			100,000,000원
(주)용마일렉트로닉스			80,000,000원
(주)플레이잇	935,000원	익 명	10,000원
익 명	10,000원	익 명	10,000원
익 명	30,000원	익 명	10,000,000원

대학(성의교정)			
김영주	7,000,000원	김평만	2,000,000원
김혜숙	1,432,290원	신소영	20,000,000원
유한재단	27,000,000원	차용기	1,000,000원
허춘웅	2,700,000원		
(재)가톨릭의과대학 내과연구재단			17,928,000원

서울성모병원			
권리원	1,000,000원	김다은	1,000,000원
김동욱	3,800,000원	김명희	1,000,000원
김영대	매월 30,000원	김재정	30,000,000원
김현주	1,756,400원	노광석	1,000,000원
박귀애	100,000,000원	박혜연	5,000,000원
오윤정	1,000,000원	오재우	224,320원
유한대	1,000,000원	유한태	50,000원
이승현	1,000,000원	이주민	500,000원
장 선	60,000원	정재원	200,000원
주중록	매월 100,000원	한경신	1,000,000원
허춘웅	300,000원	바보의 나눔	10,382,540원
(주)남유에프엔씨			26,708,587원
(주)더블유소핑			50,000,000원
(주)리스테이코퍼레이션			1,409,760원

익 명	10,000원	익 명	20,000원
익 명	100,000원	익 명	200,000원
익 명	1,000,000원	익 명	매월 2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김기수	1,000,000원	김기수	9,000,000원
박민선	매월 10,000원	변혜진	2,000,000원
서희정	10,000,000원	이유리	매월 50,000원
이주연	1,000,000원	정혜임	1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자원봉사자 일동			1,000,000원
익 명	5,000,000원		
의정부성모병원			
박연화	매월 10,000원	이재동	500,000원
(주)국민은행 의정부홍플러스지점			50,000,000원
한수림	매월 5,000원		

부천성모병원			
따뜻한 겨울나기 성가사랑나눔 PLUS 나눔캠페인 345명 14,285,000원			
계희남	매월 30,000원	김유림	매월 10,000원
김정민	매월 5,000원	박소윤	매월 5,000원
신수빈	매월 5,000원	윤희영	10,000원
이해남	200,000원	좌은경	매월 10,000원
경인여자대학교	1,000,000원		
은평성모병원			
강혜경	매월 10,000원	故김혜순 이레네	3,000,000원
김경화	매월 20,000원	김선현	2,000,000원
김형미	10,000원	안남영	30,000원
이현숙	100,000원	이현식	5,000,000원
조선형	30,000원	한은송	1,319,608원
한창희	500,000원	익 명	1,000,000원
익 명	30,000원		

2025년 11월 신규 약정자 명단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보건의료 핵심 이슈' 논의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 방안 모색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대학원장 임현우 교수)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이슈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은 지난 12월 5일,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연구소 및 인문사회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

적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개혁방안'을 주제로 주제로 제 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 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응 전략, 그리고 의정 사태 이후의 발전적 의료혁신 방향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허윤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전 국회의원은)는 '필수요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태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은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와 개선'을 통해 의료인력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발전 방향'을 발표했으며, 박정환 보건복지부 팀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의료 시스템 개혁 과제'를 주제로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2부에서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 전원과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진,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 발표 주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5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환자경험조사 우수기관 시상식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최근 법인 상임이사인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법인 및 산하기관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환자경험조사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14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직할기관 보직자 송년회의 1부 행사로 진행됐으며, 많은 교직원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2025년도 '대상' 기관의 영예는 부천성모병원이 차지해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부천성모병원은 전년도 향상 우수기관에서 대상으로 도약하며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향상을 달성한 '향상 우수기관'에는 의정부성모병원이 선정되어 상금 300만 원과 상패를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외래·입원 부문별 '우수 부서' 15곳과 향상률이 가장 높은 '향상 부서' 6곳이 선정돼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각 기관의 추천으로 선정된 21명의 개인 부문 '우수 교직원'에게는 상장과 부상, 그리고 개인 트로피를 수여하여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경상 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이 시상식은 단순히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환자에게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세심한 손길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정성을 다하는 힘이 되고, 그 힘은 현장에서 용기가 되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지금처럼 환자 곁을 든든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상 부서

구분	우수부서상		향상부서상
	외래	입원	
서울성모	외과	211 Unit / 141 Unit	안센터운영팀
여의도성모	신장내과	6층서Unit	원무팀
의정부성모	순환기내과	8층서Unit	영양팀
부천성모	정신건강의학과	나04병동Unit	영상의학팀
은평성모	종양내과	121 Unit	응급의료센터
인천성모	소아청소년과	12병동	-
성빈센트	순환기내과	55병동	2운영팀

수상 교직원

구분	교원	직원	
서울성모	장기욱(순환기내과)	권지연(심뇌혈관병문운영팀)	손유리(122 Unit)
여의도성모	박찬권(호흡기내과)	김주은(7층Unit)	고지순(9층Unit)
의정부성모	김규연(호흡기내과)	조화선(7층남Unit)	정인서(6층남Unit)
부천성모	전현우(심장혈관흉부외과)	박미현(전문진료지원팀)	이용훈(재활의학팀)
은평성모	박한얼(외과)	황윤정(121 Unit)	기부재(영상의학팀)
인천성모	서종희(심장혈관흉부외과)	박윤영(뇌병문6병동)	박수민(11병동)
성빈센트	박도준(정형외과)	이은비(신경외과중환자실)	유정우(91병동)



'아시아 첫'

차세대 양성자센터 세운다

2029년 가동, 세계 최초 '적응형 치료'로 암 정복... 10년 앞선 기술로 판도 바꾼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의료계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 11월 24일, 글로벌 선두 기업 IBA사와 체결한 'Proteus Plus' 도입 계약은 대한민국 암 치료 역사의 '세대교체'를 의미한다. 2,5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29년 말, 그 모습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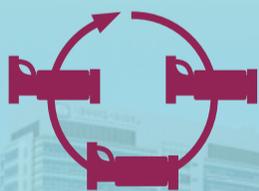
[세계 최초] 암세포 변해도 즉시 대응, '기다림 없는' 정밀 타격

기존 양성자 치료가 '정해진 설계도'대로 쏘는 방식이었다면, 서울성모병원이 선보일 '적응형 양성자 치료(Adaptive Proton Therapy)'는 세계 최초로 실시간 대응을 실현한다. 치료 과정에서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면, 시스템이 이를 인식해 오차 없이 타격 범위를 수정한다. 기존에는 치료 계획 변경을 위해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없앤 혁신이다.



[아시아 최초] 360도 연속 정밀 타격, 정상 조직 손상 제로 지향

함께 도입되는 'Dynamic ARC(다이나믹 아크)'는 아시아 최초의 기술이다. 360도 회전하는 갠트리가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이며 양성자 빔을 치료 부위에 연속조사 가능하도록 한다.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은 극소화하면서도 치료 시간은 단축되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꿈의 치료'가 현실화 되는 것이다.



[국내 최대] 3개 갠트리, "암 치료의 국가적 허브로"

서울성모병원은 단일 센터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3개의 치료 갠트리를 구축해 만성적인 양성자 치료 대기난을 해소한다. 반포 고속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전국의 암 환자들이 최첨단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시아 암 치료 허브'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이지열 병원장은 "이번 센터 건립은 서울성모병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암병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1936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문을 연 “성모병원”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년의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병원은 이제 90년의 시간을 신앙과 전문성이 축적된 역사로 품고서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의료기관의 모병원으로서 축적된 90년을 발판 삼아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CMC 영성을 더욱 깊이 새기며 이 순간부터 또 다른 100년의 미래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려 나갑니다.

100년의 기도
90년의 축적
100년의 여정

개원 90주년
“영성과 혁신으로 여는 미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YE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ujb.or.kr

경기 북부 대표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들, 신의료·연구 분야 앞장서



김찬준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가 **첨단 신의료 기술 도입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동시에 거두며 경기 북부 심장질환 치료의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김찬준·임성민 교수 수술팀은 **중증 혈관 석회화로 스텐트 시술이 까다로웠던 환자에게 경기도 최초로 관상동맥 내 충격파 치료술(IVL)을 시행해 성공했다**. IVL은 단단하게 굳은 석회질만 충격파로 파쇄하는 최신 기술로, 고위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지역 의료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다.



임성민 교수



부성현 교수

연구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부성현·안효석 교수팀은 **심부전 치료제인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이 실제 임상에서 완벽하게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연구는 세계 최고 권위 저널인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되어 그동안 학계에서 갈렸던 두 약제의 효과 차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특히 **대규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 상황에 맞춰 약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효석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는 이처럼 **고난도 시술과 혁신적 연구를 통해 임상과 학술 모든 면에서 경기 북부 의료의 선도**하고 있다. 부성현 교수는 지난 2월에도 체질량 지수(BMI)에 따른 **항혈소판제 차별화 전략 연구**를 발표해 2025년 한 해 가장 주목받는 심장질환 전문의로 전 세계에 소개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앞으로도 전문의들의 뛰어난 역량과 신의료 기술을 결합해 중증 심장질환 치료의 선구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 육 치 료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bucheon.or.kr

2026

건강한 일상

부천성모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2026

하느님의 사랑으로
기대와 용기를 전합니다

